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2. 6.(월) 6시 < 2.6.(월) 석간 >	배포 일시	2023. 2. 3.(금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상헌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 정다연 (044-203-5666)

통상차관보, 유럽연합(EU)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

- 한-유럽연합 통상 현안(탄소국경조정제도, 배터리법, 핵심원자재법, 그린딜산업계획 등) 논의 -
- 양국 디지털 통상 협력 방안 및 미(美)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협력 논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 정대진 통상차관보**는 2.6(월) 마리아 마틴-프랏(Maria Martin-Prat) **EU 통상총국 부총국장***과 면담을 갖고 **△한-EU 통상현안 △양국 디지털통상 협력방안** 및 **△美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대응협력** 등을 논의하였다.

* 양자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협력국(싱가포르, 한국, 일본) 방문

□ **정 차관보는 한국과 EU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**로, 세계적인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속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, **EU에서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정부 및 기업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**하였다.

○ 특히 **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,**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**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으며,**

○ **배터리법**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정에서 **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,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**에 대한 조속한 **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**하였다.

○ 또한, ‘23.1분기 내 발표될 예정인 **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**에 있어서도 동 법안과 계획이 **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고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**하였다.

□ 정 차관보는 **현재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**(SUPD)가 친환경 제품인 **바이오플라스틱 사용도 규제*하고 있어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**하였다.

* EU는 ’19.5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채택(’21.7 시행), 동 지침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(바이오플라스틱 등)의 사용이 제한되어 재검토 지속 요청 중

□ 한편, 美 IRA 관련하여 **정차관보와 마틴-프랏 부총국장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**하며, 향후 지속적으로 **대응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**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아울러, 양측은 **지난 한-EU FTA 무역위(‘22.11) 계기에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**(Digital Trade Principles)을 기반으로 **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**하기로 하였다.

□ 한편, **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.2일(목) 출범한 對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**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**EU 주요법안들에 대해 우리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·지원방안을 검토**해나갈 예정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